****

**하늘의 별에 닿기**

사라 발렌티나 헤르만데스 솔라체에게는 멕시코 고지대에 위치한 다채로운 색의 도시 지카쿠아로가 그녀의 고향이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도시는 수백만 마리의 군주나비들이 매년 이동 기간에 들판과 숲에 내려 앉으며 오렌지 색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곳이 그녀에게는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정말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라고 사라가 말했습니다. 사라는 그 지역의 교회에서 장로교인으로서 자랐습니다. "멕시코는 최상의 기후와 최고의 음식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정말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녀가 자란 동네에서 자행 되는 어린 소녀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때문에 그녀의 부모들은 그녀의 언니처럼 그녀 또한 미국 텍사스 주 킹스빌에 위치한 장로교 팬아메리칸 학교에 유학을 보낼 결정을 했습니다. 1911년에 설립된 이 학교는 미국장로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국제 대학 입시 기숙학교인데 청년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크리스찬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훈련을 합니다.

"우리는 팬아메리칸과 관계를 맺고 있던 우리 교회의 도움으로 이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모교를 애칭으로 부르며 말했습니다. "이 학교는 장학금 수여 편지를 멕시코 전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삶을 바꾸고 변화시켰습니다. 두 자매는 지금 팬 암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졸업생들입니다. 사라는 텍사스 주의 슈라이너 대학 의예과 전액 장학생이고 그녀의 언니는 휴스턴에서 건축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팬 암이라는 기독교 공동체는 사실 저의 자아와 믿음을 발견하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 곳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축복 받았습니다"

청년들을 교회와 세계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팬 암과 같은 유색인종 공동체를 훈련시키는 장로교단 유관 학교와 대학들을 돕는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에 참여해 주십시오.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에 참여해주신 관대하신 분들이 저희에게 장학금과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늘 감사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분들은 저희에게 많은 희망도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꿈꿔 온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팬 암의 교장 고든 A. 고븐스 박사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과 기도의 나눔을 통해 각각의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특별 헌금을 통해 희망은 꿈이 된다는 것입니다. 꿈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별들에 손이 닿게 됩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헌금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드리면 많은 것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문턱을 넘어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서로 관계를 맺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